

IgA 신병증에서 임상적, 조직학적 분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신장병 연구소, 병리학 교실*
 김상욱, 한상엽, 조상경, 차대룡, 권영주, 조원용, 표희정, 김형규, 원남희*

IgA 신병증은 일차성 사구체 신염증 가장 흔한 형태로서 다양한 조직학적 형태를 보이며 일부 환자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IgA 신병증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질환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려 112명의 IgA 신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자료와 조직학적 형태를 분류 분석하였다. 조직학적 분류는 Haas의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subclass I에서 V까지 나누었다.

1. 전체 환자 112명의 평균 연령은 32.5세였으며 남녀비는 52:60이었으며 subclass I은 11명 (10%), II는 2명 (2%), III는 55명 (50%), IV는 24명 (21%), V는 20명 (17%)이었다.
 2. 신 생존율과 조직학적 분류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 subclass I과 II, subclass III, subclass IV와 V의 순서로 예후가 좋았다.
 3. subclass III 환자에서만 crescent가 존재할 때 유의하게 신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subclass의 환자들은 crescent의 유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4. 진단 당시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나 일일 단백뇨가 3.5 g 이상이었던 환자에서는 신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나 육안적 혈뇨의 유무는 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이상의 결과에서 Haas에 의한 조직학적 분류는 IgA 신병증에서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이나 현재의 신 기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알부민 투여가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의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이수진, 정지아, 황수자, 이승주

목적 : 알부민은 신증후군성 부종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고혈압, 심부전 등의 위험이 있고 최근에는 알부민 투여에 따른 고단백 부하가 병적인 사구체 상피세포의 손상을 가중시켜 신증후군의 임상적 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신증후군 환아에서 알부민 투여가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행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에 신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아에게 deflazacort (2mg/kg/일, 단독투여)로 치료하면서 무작위로 20%알부민(1g/kg)과 furosemide(2mg/kg)를 3일간 투여하였다. 이중 표준 스테로이드 치료 8주에 반응을 보이고 1년동안 추적조사가 가능하였던 22명 중 알부민을 투여 받은 군 (알부민군) 9명과 알부민을 투여 받지 않은 군(대조군) 13명을 대상으로 임상경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 1) 스테로이드 투여후 단백뇨 소실까지의 기간은 알부민 투여군에서 12.9 ± 7.5 일로 대조군 7.0 ± 2.8 일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P < 0.05$). 2) 요 protein/creatinine비는 알부민 투여군에서 투여후 수일간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증가하였다 ($P < 0.05$). 3) 체중의 변화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완해후 1년간 재발율은 알부민 투여군에서 88.9% (8/9)로 대조군의 46.2% (6/1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5) 재발까지의 기간은 알부민 투여군에서 99.9 ± 69.8 로 대조군의 161.7 ± 77.3 일에 비하여 짧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15$) 완해후 1년간 재발 횟수는 알부민 투여군에서 1.6 ± 1.1 회로 대조군의 0.7 ± 0.9 회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73$).

결론 :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에서의 알부민 투여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을 지연시키고 완해후 재발을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알부민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